

대구경북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부, 지자체 한 자리에

-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 및 기상관측 표준화 워크숍 개최 -

대구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은 5월 9일(목)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, 지자체 등 16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여 기상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협의회」와 「기상관측 표준화 워크숍」을 개최하였다.

방재 관계기관(지자체, 경찰청 등)의 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△2023년 여름철 기상특성과 2024년 여름철(5~7월) 기상전망, △대구·경북 호우 긴급 재난문자 시범서비스 등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 대책 등을 공유하고,

기상관측시설 운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△기상관측표준화 업무와 관측자료 공동 활용, △관측자료 연계 및 기상전문기관 제도 안내 등 기관별 협조사항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이 회의를 통해 방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올 여름철 위험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[붙임] 행사 관련 사진 1부.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이동희 (053-282-0120)
		담당자	사무관	손희정 (053-282-0136)
<공동>	대구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이용태 (053-282-0140)
		담당자	주무관	류춘만 (053-282-0145)

